‘삐끗’하면 ‘바닥’…무조건 이기고 버틴다

광주FC, 오는 7일 원정 제주SK FC戰 사활

제주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기운 이어 탈꼴찌 희망 불씨 점화
아이데일·바 루아 막강 쌍포, 철벽수비 더해 압도적 승리 각오


광주FC 아이데일이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팀이 0대1로 뒤진 후반 30분 동점골을 터뜨린 후 바 루아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프로축구 광주FC가 ‘약속의 땅’ 제주에서 승리를 거두고 탈꼴찌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3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34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선제 실점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추격의 희망을 이어갔다.

현재 11위 부천FC1995와의 승점 차는 10점. 이번 제주전에서 패할 경우 부천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하위가 확정되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절체절명의 승부다.

공격진의 상승세는 여전히 고무적이다.

최전방 공격수 아이데일은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10월 한 달간 6골을 터뜨리며 K리그1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바 루아 역시 김천전에서 도움을 추가하며 10월에만 3골 5도움으로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난 부천전에서 결장했던 유제호와 이민기가 김천전을 통해 복귀하며 중원과 수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안영규와 문민서도 경기 도중 발생한 반 흐룬스벤과 하승운의 부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전력 손실을 최소화했다.

광주는 복귀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광주에 좋은 기억이 많은 상대다.

광주는 역대 제주 원정에서 6승 6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8월14일 2-1 승리를 시작으로 제주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5승 6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약 10년간 이어온 제주 원정 무패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고, 부천과의 승점 차를 좁혀 잔류를 향한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제주는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공격수 네게바가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역시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광주는 네게바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공격을 봉쇄하는 동시에 아이데일과 바 루아의 득점력을 앞세워 올 시즌 제주전 첫 승리를 노린다.

광주가 제주 원정 12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승리로 장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잔류를 향한 기적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SOOP 수퍼스,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팬들과 함께”…오늘 도로공사 상대 홈 개막전

음악 스트리머 공연 ‘락케스’, 정동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지난 1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SOOP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KOVO 제공〉

여자프로배구 신생팀 SOOP 수퍼스(SOOPers)가 홈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치른다.

SOOP 수퍼스는 5일 오후 7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SOOP 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창단 첫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SOOP 수퍼스가 정규리그 홈 팬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는 자리다.

지난달 3일 ‘BUILD Together, WIN Together’를 슬로건으로 2026-2027 V-리그 시즌 힘찬 출발을 알린 SOOP 수퍼스는 지난 1일 흥국생명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6-27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홈 개막전은 시즌 두 번째 경기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 승리에 도전한다.

지난 1일 열린 흥국생명과의 원정 개막전에서는 0대3으로 패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 서지혜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고예림, 전새얀, 고의정을 고루 활용하며 분전했지만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수 오드리아나가 선발로 출전해 팀 내 최다 득점인 15점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김세진 SOOP 수퍼스 감독은 오드리아나와 아시아쿼터 이즈 쉬에를 비롯해 한다혜, 고의정, 고예림 등을 중심으로 첫 경기를 치르며 전력을 점검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만큼 시즌을 치르면서 팀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세진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모두가 하나돼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즌 첫 승리를 홈에서 거둔다는 투혼으로 코트에 선다.

경기에 앞서 다양한 공연과 팬 참여 행사도 열린다. 오후 4시30분부터 경기장 외부에서는 서수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MC로 참여하는 ‘락케스 with 치얼업 수퍼스’가 진행된다. 락케스는 SOOP에서 활동하는 음악 스트리머들이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콘텐츠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과 함께 홈 개막전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경기장 내부에서는 가수 정동하의 축하공연과 비보이팀 ‘아띠즈’, 치어리더 ‘수퍼걸스’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스트리머 앰배서더 위촉식도 진행된다. 경기장에는 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존도 운영된다.

한편, SOOP은 프로배구부터 실업배구, 국제대회까지 다양한 배구 경기와 콘텐츠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구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V리그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배구대회의 경기 일정과 소식을 제공하며, 주요 장면과 하이라이트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故 최동원, 야구 선수 첫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대한체육회는 한국 야구 전설인 고(故) 최동원을 ‘2026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5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3명(박주봉, 최동원, 황영조)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최동원을 올해의 스포츠영웅으로 결정했다.

최동원은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4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이끌었고, 1977년 대륙간컵과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등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다.

프로야구 통산 8시즌 동안 248경기에 등판해 103승, 26세이브, 1천19탈삼진,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와 해설위원,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 운영위원,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 등으로 활동하며 야구 발전에 공헌하다가 2011년 지병인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대한체육회가 근현대 스포츠 역사를 빛낸 전설적 영웅을 선정해 기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처음 제정됐다.

최동원은 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으며 구기 종목 선수로는 박신자(농구·2015년), 차범근(축구·2017년) 이후 세 번째다. /연합뉴스


2011년 별세한 고 최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은 대한체육회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통준위, “대한체육회 중재안 수용 합의”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김로한)는 3일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상황실에서 열린 통합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향후 제시될 대한체육회 중재안을 수용하고,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오는 6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각각 마련한 선거인 구성 및 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양측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은 이를 준용해 민선 3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중재안을 준용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창립총회 개최를 비롯해 특별시 인가 신청, 법원 등기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신청, 선거 진행 등의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희중 기자

‘셔틀콕 퀸’ 안세영, 안방에서 11승 향해 순항


4일 전남광주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32강전. 안세영이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스트로크하고 있다. 안세영은 날반토바를 39분 만에 2-0(21-6 21-8)으로 완파하며 시즌 11승을 향한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중동 정세 불안에 결국 2027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개최 일정을 내년 연초에서 연말로 연기했다.

AFC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7년 1월7일부터 2월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2027 AFC 아시안컵을 2027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월2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최국 사우디는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공항과 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되는 등 정세가 불안해졌다.

이에 따라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회 연기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FC는 불과 약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경기 일정을 발표하며 대회 정상 개최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국 급변하는 상황에 뜻을 바꿨다.

AFC는 “현재 중동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물류상의 복잡성과 이동 차질 등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정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